

2021년 서평쓰기대회 최우수상 수상작

최우수상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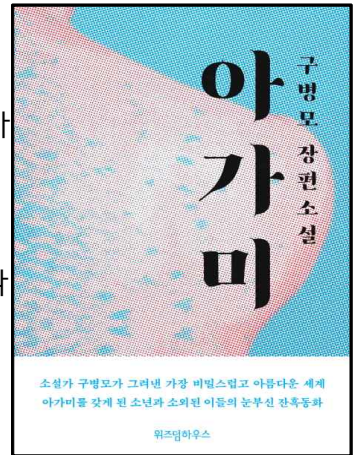
구별모 : 위즈덤하우스, 2018

제목 : 세상 속에서 호흡하는 우리는

인간은 아가미가 없다. 그리하여 물속에서 오래 살 수 없다. 아가미가 있는 어류는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산소를 호흡한다. 당신에게 만약 아가미가 생겼다면 한 번도 발 담가보지 못한 세상을 유유히 호흡할 수 있는지, 이전처럼 자신을 애정으로 해줄 수 있는지, 생각보다 쓸쓸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아가미』는 현실과 비현실을 연결해주는 창과 같은 도서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가미가 생겨 극적으로 살아난 '곤이'는 인어인지 인간인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인물이다. '곤이'가 우리 사회에 있는 인물이었다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침묵하거나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아서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곤이와 같은 존재는 없지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돌연변이 취급을 받는 이들은 많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도 만만하게 혼자가 된다. '이들'이라고 칭해져서 수많은 '나'들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다. 『아가미』는 '혼자'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자신을 배제하는 우리에게 나지막이 분노하고 한탄하는 책이다.

『아가미』에서 나에게 여운을 주는 것은 강하와 곤이의 감정선이다. 강하는 곤이를 호숫가에서 구해준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했지만 동경하면서도 질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인물이다. 곤이는 아가미가 생긴 시점을 이후로 점점 물고기와 같이 비늘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 비늘은 정말 잘 가공된 보석과 같이 반짝이며 빛나기에 강하가 아름답게 생각함과 동시에 남들이 볼까 봐 불안한 존재였다. 곤이의 비늘은 마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치부였기 때문이다. 비늘에 대한 강하의 감정을 계속 곱씹어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서투르지만 외면하지 않으려 애쓰는 존재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다. 강하는 분명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존재는 아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강하를 낳은



것으로 모자라 마약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께 애정을 받지 못한 점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마땅하다. 애정을 받아보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줄 수 있는가. 인간관계에 있어 서투름은 결코 잘못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강하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세상조차 무관심한 이웃에게 서투른 위로는 세상을 호흡할 수 있는 아가미가 되어준다. 이 아가미는 상처가 아닌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준다.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고 능숙한 감성 표현보다는 어설피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어류는 '부유 적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물에 뜰 수 있는 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바닥 생활에 적응된 종들은 성장 중에 부레가 퇴화하여 가라앉은 상태로 살아간다. 어류에게 부레 퇴화는 그저 '환경에 맞춰진 진화'이다. 하지만 인간이 부레를 잃는다면 말이 다르다.

어류는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부레가 퇴화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가는 것이다. 나락으로 가지 않으려는 방법은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곤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병든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해류, 가난의 끝까지 내몰린 곤이의 아버지, 마약 중독자 강하의 어머니. 그리고 보금자리를 빼앗긴 동물들도 한 도서의 설정을 넘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아가미』가 왜 잔혹동화인지를 설명해준다. 소외의 대상은 내가 될 수도, 내 가족이 될 수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소외'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잃은 비인간적인 상태이다. 비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유 없이 증오하고 자책하는 것은 마침내 나와 세상을 떨어뜨려 놓는 행위이다.

인간은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사소한 것들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손쉽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서 숨어서 살던 곤이가 물속에서만은 자유롭게 헤엄쳤던 것처럼 자신에게 알맞은 인어의 부레 같은 것들이 한두 개씩은 주어진다. 가라앉던 이들에게 부력을 선물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미약하게라도 헤엄쳐 물결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숨 쉬며 살아간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물 밑바닥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서툴더라도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와, 우리의 노력으로 일구어진 잔물결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알다시피 인간은 아가미가 없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호흡할 힘은 있다. 그 힘은 '세상'이라는 넓고 찬란한 바닷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네가, 우리가 만들어 주는 부력이다. 서로에게 무심해져 버린 일상은 익숙함을 주지만, 어쩌면 빠져나오지 못할 심연일지도 모른다. 익숙함에 잠식된 우리에게 아가미가 없어도 호흡하는 방법은 모든 이가 알고 있다. 『아가미』 속, '어쩌면 세상은 그 자체로 바닥없는 물'이라는 해류의 대사처럼 삶에 대한 의지 하나로 열심히 두 팔을 휘저어 나가야 한다. 해류(海流)에 따라 흘러가면서도 우리는 헤엄쳐야 한다. 누구 하나 떠내려가는 이 없는 세상을 바라며 단단히 호흡하는 우리가 있길 바란다.